

“민주주의 지켜낸 ‘광주정신’ 헌법에 새겨야”

518 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연창

주제영상·기념공연으로 1980년 항쟁 생생히 재현 참석자들 “오월정신 계승·사적지 보존 이어져야”

“5·18 민주화운동의 중심이었던 옛 전남도청에서 오월 영령들과 함께할 수 있어 더욱 뜻깊습니다.”

18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복원된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열리며 1980년 5월의 아픔과 민주주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주제영상 상영,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영상 상영이 끝나자 광장에는 공장 속 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라는 당시 가두방송 음성이 울려 퍼지자 참석자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1980년 5월의 참상을 떠올렸다.

이어진 기념공연 낭독극 ‘오월의 기억’에서는 극단 토박이와 한빛고등학교 학생들이 계엄군의 총알 앞에서 끝내 서로를 일으켜 세웠던 시민들의 항쟁을 온몸

으로 재현했다.

특히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속 문장인 “당신이 죽은 뒤 내 눈이, 귀가, 허파가 사원이 됐다”는 낭독은 광장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도청 원형 복원을 기념한 특별공연도 이어졌다. 흰 소복 차림의 출연진들은 긴 흰 깃발을 흔들며 오월 정신의 계승과 화합의 메시지를 표현했고, 국악 선율과 어우러진 무대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5·18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오월 정신 계승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 남구 노대동에서 걸어왔다는 박우성씨(75)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옛 전남도청이 원형 복원된 만큼 다른 5·18 사적지 보존에도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은 개헌 논의가 다시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5·18공로자회원인 이종현씨(72·송정동)도 “1980년 당시 계엄군의 곤봉에 수도 없이 맞아 지금도 오월만 되면 몸과 마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특별공연 ‘오월의 찬란’ 18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특별공연 ‘오월의 찬란’ 특별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음이 아프다”며 “6년 만에 옛 전남도청에서 열리는 기념식과 정신 개헌식을 함께 보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기념사처럼 오월 정신은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념식의 마지막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장식했다. 참석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주먹을 들어 올린 채 노래를 함께 부르며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을 되새겼다.

학생기자 sty1235@gwangnam.co.kr

“국가기념식에 참석하게 돼 영광”이라며 “부모님과 함께 전일빌딩245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을 찾아 1980년 5월을 공부했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미리 연습했다”고 말했다.

승태명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맑음 05:26 달맞이 07:09
맑음 19:32 달맞이 22:42



광주	16~30
목포	16~27
여수	15~26
순천	15~29
구례	14~29
광주	12~27
신도	15~26
죽산도	16~22
고흥	13~27
진도	15~24

목포	밀물(고)	03:59 / 21:41
	썰물(저)	07:07 / 21:06
여수	밀물(고)	10:37 / 23:22
	썰물(저)	04:37 / 16:39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진행된 온라인 이벤트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논란 확산.

스타벅스는 이날 공식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단테·탱크·나수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며 ‘컬러 탱크 텀블러 세트’, ‘탱크 듀오 세트’ 등을 선보여.

하지만 ‘탱크데이’를 5월18일에 맞춰 진행한 점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5·18을 조롱하는 인터넷 은어를 떠올리게 한다”, “광주의 상처를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는 비판 이어져.

이벤트 이미지에 포함된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도 논란. 또 다른 일부는 1987년 고 박정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수사기관의 ‘책상을 탁 치너 억 하고 죽었다’는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는 “이벤트 과정에서 부적절한 문구가 사용됐음을 발견했다. 행사는 현재 중단했다”며 “고객 분들께 불쾌감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고개를 숙여.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공선옥 작가, 5·18 46주년 특별 인문강연

동구, 오늘 옛전남도청서 전시 해설·토코쇼

광주 동구는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과 공동 주관으로 19일 옛 전남도청 별관 3층 세미나실에서 ‘동구 화요 인문대학’ 제4강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특별 프로그램으로, 광주의 역사적 현장을 시민과 함께 돌아보며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후 4시 ‘옛전남도청 전시 해설 프로그램’으로 문을 연다.

참가자들은 복원된 옛전남도청 전시 공간을 함께 걸으며 1980년 5월 광주의 시간과 승리를 현장에서 체험하게 된다.

이어 오후 5시 30분부터는 소설 ‘피어라 수선화’, ‘오지리에 두고 온 서른살’ 등으로 잘 알려진 공선옥 작가(사천)가 초청 강연을 진행한다.

1991년 ‘장작과 비평’을 통해 등단한 공 작가는 ‘사건 이후 그리고 묻는 방식’을 주제로, 5·18 이후의 광주와 기억, 질문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성찰할 예정이다.



강연이 끝난 뒤 오후 6시 30분부터는 김영순 광주동구 문화관광재단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공 작가와 함께하는 토코쇼가 이어진다.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대화 속에서 ‘기억’과 ‘질문’이 갖는 의미를 나누며 강연의 여운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동구 화요 인문대학’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광주 동구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 ‘두드림’, 또는 전화(062-608-2142)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강좌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동구 관계자는 “제46주년 5·18을 맞아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과 함께 이번 인문대학 강연을 공동 주관할 수 있어 뜻깊다”며 “잔잔한 강독과 긴 여운이 남을 이번 특별강연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승태명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 주남마을 5·18위령비 도로확장사업 ‘시동’

동구, 실시설계 용역 추진...내년 하반기 완공 목표

광주 동구가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주남마을 5·18 위령비 추모공간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확장사업에 착수했다.

18일 동구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주남마을 안길 5·18위령비 도로확장사업’은 접근성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지난 1월 시작된 실시설계 용역은 동구 월남동 139-1번지부터 월남동 65번지 일원까지 조성된 시멘트 도로 470m 구간을 기존 폭 2.5~4m에서 6m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왕복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며, 용역비는 구비 6000만원이 투입됐다.

동구는 지난 3월 공사비와 토지보상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10억원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공모에도 신청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그린벨트 구역로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

선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총사업비의 70~9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남마을 5·18 위령비 일원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기억이시나’인 인권문화제가 열리며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아 왔다. 하지만 도로 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어렵고 보행 안전 문제도 제기되면서 주민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도로 확장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동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주남마을 안길 개발의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후 오는 7월 주민 열람 공고와 심의·고시 절차를 거쳐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주남마을의 주요 사적지를 보다 편안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1980년 주남마을의 아픈 기억이 세계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남마을 뒷산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희생돼 암매장된 채수길·양민석씨를 기리는 위령비가 세워져 있다.

두 사람은 1980년 5월23일 주남마을 초입 광주~화순 간 15번 국도를 지나던 25인승 미니버스에 탑승했다가 계엄군으로 투입된 11공수여단의 총격을 받았다. 당시 버스 탑승자 15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부상을 입은 채수와 양씨는 11공수여단 잔류되었던 주남마을 뒷산으로 끌려가 총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980년 6월2일 주남마을 주민들이 뒷산에서 두 사람의 암매장 시신을 발견하면서 5·18 암매장 의혹이 본격 제기됐다. 시신 발견 장소에는 위령비가 세워졌고, 주민들은 트라우마 극복과 기억 계승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기억이시나’ 축제를 이어오고 있다.

승태명 기자 sty1235@gwangnam.co.kr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현장 접수 가보니...

“장바구니 부담 덜어...모처럼 가게 숨통”

접수 첫날 행정복지센터, 이른 아침부터 복직 외형 동일한 선불카드 지급·8월 지나면 소멸

“병원 갈 때마다 약값이 부담됐는데 이제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뤄왔던 치료도 받아보려고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 18일 오전, 광주 남구 진월동 행정복지센터는 접수 시작 전부터 주민들의 발길로 붐볐다. 주민 30여명은 번호표를 손에 쥘 채 순서를 기다렸고, 접수 창구 앞에는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챙긴 주민들이 길게 줄을 섰다.

행정복지센터 곳곳에는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지급 금액, 사용 기한 등을 안내하는 현수막과 배너가 설치됐다. 직원들은 건강보험료 기준과 신청 절차를 설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고, 일부 주민들은 대리 신청에 필요한 위임장과 가족 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안내받기도 했다.

오전 9시가 가까워지자 대기석은 번갈아 줄을 찾기에 어려울 정도로 가득 찼다. 접수가 시작되자 주민들은 번호 순서에 따라 창구로 이동해 신청서를 작성했다. 직

원들은 연신 번호를 호명하며 신청서를 건넸고, 주민들은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적어 내려갔다.

낮선 항목에 잠시 머뭇거리려는 이들도 있었지만 직원들의 설명이 이어지자 차분히 절차를 마무리했다.

접수를 마친 주민들의 표정에는 오랜만의 안도감이 묻어났다.

진월동에 거주하는 김모(52)씨는 “아이 학원비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장보는 것도 부담이었다”며 “이번에는 만찬거리와 과일 정도는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지원 대상 여부를 묻는 문의도 잇따랐다. 일부 주민들은 “전 국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 18일 오전 광주 남구 진월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주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이 다 받는 줄 알았다”며 다시 기준을 확인했고, 직원들은 건강보험료와 재산·금융소득 기준 등을 설명하며 안내했다.

같은 시각 북구 오치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신청

과 카드 배부가 이어졌다. 현장에는 북구 365민생회복지원단 직원들이 배치돼 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 절차를 도왔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최근 물가와 유가 부담이 커지면서 생활비와 차량 유

지비 관련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건강보험료 기준과 준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면 보다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광주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류돼 일반 대상자에게 15만원이 지급되며, 전남 16개 특별자치지역 주민은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다만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글·사진·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